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질벅질벅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질벅질벅하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질벅질벅하다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질벅질벅하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물체가 겨우 잠길 정도로 물이 차 있거나 물기가 꽤 많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졸벅졸벅하다	-	-	-
질벅질벅하다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물체가 겨우 잠길 정도로 물이 차 있거나 물기가 꽤 많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질벽질벽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물체가 겨우 잠길 정도로 물이 차 있거나 물기가 꽤 많다.



질벽질벽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질벽질벽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즐벽즐벽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질벽질벽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즐벽즐벽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즐벽즐벽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질벽질벽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즐벽즐벽하다**

19세기

- 질벽질벽하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즐벽즐벽하-, 즐벽즐벽하-, 질벽질벽하-

↳ 질벽질벽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질벽질벽하다’의 옛말인 ‘즐벽즐벽하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즐벽즐벽하-’는 물체가 겨우 잠길 정도로 물이 차 있거나 물기가 꽤 많은 모양을 뜻하는 부사 ‘즐벽즐벽’과 현대어 ‘-하-’로 이어지는 ‘-하-’가 결합한 것이다. ‘즐벽즐벽’은 물기가 많다는 뜻하는 동사 ‘즐-’에 접미사 ‘-벽’이 결합한 ‘즐벽’이 반복된 형태이다.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동사 ‘즐-’이 ‘ㅅ, ㅆ, ㅈ’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로 인해 ‘질-’로 바뀌어 ‘질벽’이 되고 이 형태가 반복되어 ‘질벽질벽’이 나타난 것이다. 20세기에 ‘하’가 ‘하’로 표기되어 ‘질벽질벽하다’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20세기에 ‘즐벽즐벽하다’도 나타난다.

📖 문헌 속의 질벽질벽하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즐벅즐벅하-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즐벅즐벅하-

📖 출처 1880 한불사전 557

용례 01

66 문헌 용례

즐벅즐벅하다 [濕貌]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즐벅즐벅하-, 질벅질벅하-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즐벅즐벅하-, 질벅질벅하-

📖 출처 1926 동아일보 8월19일 2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즐벅즐벅한 길로 처벅처벅 가는 모양이 아모리 보아도 텃하태평이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27 동아일보 3월 11일 2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그늘진 덕분에 눈과 얼음이 녹지 아니한 곳이나 탄탄대로라고 할는지 한나절 지난 햇쌀이
알마즌 곳이면 의례히 산길의 본색을 닳타내여 즐벅즐벅한 진흙구렁이 아니면 기암괴석이 나
올 듯 나올 듯한 조악돌 밧이외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34 조선일보 2월 6일 7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춤지도 안은 날에 폭운한 진눈이 나리고 내려 길은 질벅질벅한 곳이 만습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거리거리는 진흙이 질벽질벽하고 차마가 지나갈 때마다 흙물이 뛰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질벽질벽하다 관련 낱말

질다

질벽질벽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질벽질벽하다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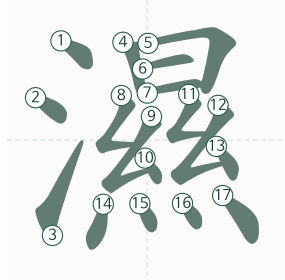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濕

뜻·음 젖을 습

총 17획 · 부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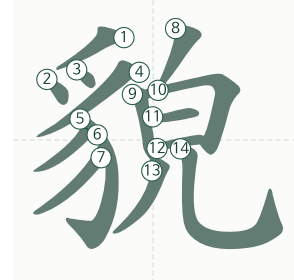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濕/

貌

뜻·음 모양 모

총 14획 · 부수 豸



hanja.wordrow.kr/한자/貌/